

뽕정무원의 무한도전

# 풍선트리만들기

CUM 친구들~ 성탄에 기쁘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대령 시기 잘 준비하고 있겠지? '크리스마스'에 빼놓을 수 없는 것, 무엇이 생각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뭐니해도 '트리' 아니겠어? 이번에는 트리를 직접 만들어보자. 재밌겠지? ㅋㅋ

## 풍선 트리 만들기!



- 30cm 풍선 31개(색상: 초록계열이면 무방합니다. 여기서 펠에메랄드그린을 썼어요.)
- 13cm 풍선 (펠레드 20개, 펠화이트 20개)
- 고무밴드 40개
- 요슬풍선 1개
- 손 펌프(풍선을 입으로 불어도 되지만, 손 펌프를 이용하면 훨씬 수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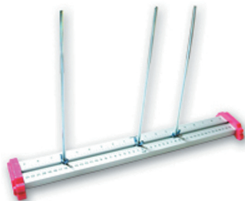


### 이. 준비물



### 02. 준비작업 -사이저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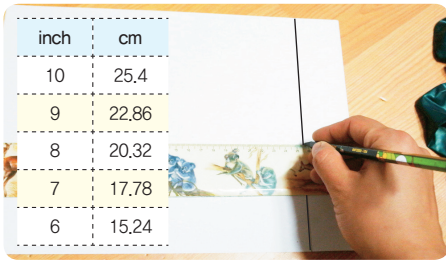
풍선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풍선의 균일한 사이즈입니다. 보통은 풍선의 크기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사이저'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왼쪽 사진 참조) 사이저가 없더라도 괜찮아요. 서류꽂이나 음료수 상자 등을 이용해서도 충분합니다. 풍선이 그 사이를 지나가도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단, 풍선이 닿는 부분이 마찰 없이 편평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는 배와 포도상자를 사용했습니다.

두 상자 사이의 간격은 풍선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놓는데,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일단 A4 용지에 10인치부터 6인치까지 줄을 그어요. (1인치는 2.54cm)



줄을 그어놓은 A4 용지를 바닥에 깔고, 상자와 상자 사이 간격을 10인치 떨어뜨려 놓아요. 이렇게 하면 사이저 대응품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이저'로 부르기로 합시다.



### 03. 풍선 불어 묶기

30cm 그린 풍선에 바람을 넣어요. 10인치보다 약간 더 크게 불어서 10인치 맞춘 사이저 사이로 부드럽게 앞으로 당겨 지나가게 합니다. 풍선의 가장 볼록한 부분이 양쪽 벽에 닿아 끼이지 않고 부드럽게 쏘옥 지나갈 수 있게 바람을 살살 빼 가며 크기를 맞추어 사이저를 빠져나오면 됩니다.



하나 더 불어야 하니까 방금 분 풍선은 잠시 손가락 사이에 끼워 두거나 입에 물어요.

같은 방법으로 풍선을 하나 더 불어서 크기를 맞추어 사이저를 지나간 뒤, 아까 불어 두었던 풍선과 함께 묶습니다.

묶기 전에 풍선이 동그래지도록 모양을 잡아주어요. 꼭지를 잡고 바닥에 수직으로 조금 눌러주면 돼요. 동글동글 동그란 게 예쁜 풍선입니다.



예쁘고 동그란 풍선이 될 수 있도록 매듭은 최대한 풍선 가까운 쪽으로 당겨서 묶어주세요.  
이제 두 개의 풍선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죠?



#### 04. 두 덩어리 묶기



같은 방법으로 두 개의 풍선을 붙여서 묶어 놓고, 풍선 한 개를 더 붙여서 두 개 사이에 한 번 더 매듭으로 묶어주세요.



그럼 풍선 두 개짜리(두 방울) 한 덩어리  
와 세 개짜리(세 방울) 한 덩어리,  
총 두 덩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두 방울과 세 방울을  
서로 엇갈리게 잡고 엮어주세요.  
풀리지 않게 두세 번 꼬아 줍니다

이제 다섯 개짜리 풍선  
한 덩어리가 완성됐네요.



#### 05. 한 단씩 사이즈 줄여가며 5방울 만들기

사이저를 1인치씩 줄여가며 같은 방법으로 5방울을 만듭니다. 9인치 한 세트, 8인치 한 세트  
 이런 식으로 7인치, 6인치까지 만들어요. 그럼 5방울짜리가 치수별로 총 다섯 세트 나오겠죠? 10인치부터 6인치까지~





## 06. 5방울 엮어 트리 만들기



10인치 세트 한가운데에 같은 색상 계열의 요술 풍선 하나를 묶어주세요.



10인치 세트 위에 10인치 풍선의 사이사이에 9인치 풍선들이 앉을 수 있게 끼워주세요.



10인치에 묶어둔 요술풍선으로 9인치 세트를 두세 번 감아 고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8,7,6인치 세트를 하나하나 엮어 요술풍선으로 두세 번 돌려 감아 고정해주세요.



6인치까지 다 엮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맨 위가 허전하죠?



6인치로 풍선 하나를 붙여 맨 위에 엮어줍니다. 맨 윗풍선의 꼭지를 당겨 바로 아래층에 있는 6인치 풍선 세트의 사이사이를 위아래로 감아 돌려 지나 다니면 고정됩니다.



## 07.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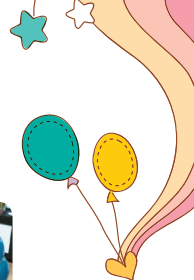
이제 트리모양이 완성됐네요.



유치부 친구 키보다 커요. ^^



근데 뭔가 밋밋하죠? 장식을 해봐요. 13cm 풍선을 이용해 작은 방울을 만들어 여기저기 걸어주세요. 뼈에로 코만 하게 붙여(지름 4~5cm) 최대한 풍선 몸통 쪽으로 당겨 동그란 모양이 되게 매듭을 당겨 묶고, 다시 고무 밴드에 묶어 여기저기 맘에 드는 곳에 걸어주시면 돼요. 이제 진짜 완성입니다. ^^





성탄 특집 보너스!!!

# 갈란드 (garland) 만들기

13cm 풍선(필에메랄드그린)  
100여개, 13cm 펠레드 20개,  
13cm 펠화이트 20개, 얇은 노끈  
2m, 붉은색 계열 넓은 리본 약간

## 갈란드 (garland)

갈란드는 원래 화환이란 뜻인데, 모양은 꼭 동그랗지만은 않고 방원이나 기다란 가로 막대기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리스(wreath)와 뜻은 같운데 리스는 늘 동그랗고 대략할 같이 생겼지만, 갈란드는 여러 가지 변형될 모양이 많아요. 마트나 백화점에 겨울 장식으로 빠지지 않는 단골 장식품인 갈란드는 폭을 얇게 줄을 만들어 늘어뜨리는 디자인의 장식 품으로 파티 분위기를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실내장식으로 유효적이며, 계단의 난간, 벽, 기둥, 천장 등의 장식으로도 어울리고 풍선을 유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 1단계(사이저 눈금 준비)

사이저는 준비하셨죠? 종이에 4.75인치부터 0.25인치씩 줄여 가며 줄을 그어주세요. 또 산 수하실까 봐 미리 계산해 놔습니다. 그런데 소수점까지 맞추기 참 번거롭죠? 12cm에서 그냥 6mm씩 줄여가며 그어 주세요. 줄 다 그으셨으면 아까처럼 상자 사이에 맞춰놓으면 사이저가 되겠죠? 그럼 시작해봅시다.

inch	cm	갯수
4.75	12,065	4
4.5	11,443	8
4.25	10,795	8
4	10,16	8
3.75	9,525	8
3.5	8,89	8
3.25	8,255	8
3	7,62	8
2.75	6,98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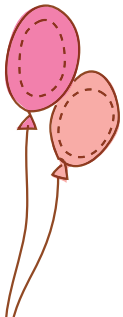
### 2단계(가운데풍선 불어 줄에 묶기)

4.75인치로 두 개를 불어서 묶고, 또다시 두 개를 불어 묶습니다. 두 방울짜리 덩어리 두 개를 풀어지지 않게 두세 번 꼬아 엮어주세요. 4방울 한 덩어리가 되었죠? 이것을 2m 노끈의 가운데에 두세 번 돌려 고정합니다. 노끈은 같은 색 계열이면 더 좋겠어요. 저는 컬러링 리본을 썼답니다. 위의 표에 적합한 사이즈 참고 하셔서 점점 작게 불어 4방울로 묶어주세요.

### 3단계(중간풍선 양옆으로 한 단계씩 작은 풍선 고정하기)

트리는 위쪽으로 점점 작아지며 산 모양이 되었잖아요~ 갈란드의 경우에는 양쪽 끝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4.75인치 풍선 4방울 세트 양옆에 4.25인치 풍선 세트를 엇갈리게 끼워 넣고 노끈을 이용해 두세 번 돌려 고정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2.75인치까지 중앙에 가장 큰 풍선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하나씩 점점 작아지게 붙여서 고정해 나가면 됩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아홉 개의 대칭된 방울들이 붙어 있으면 되요.





#### 4단계(맨 윗방울 엮기)

맨 마지막에 2.75방울 두 개를 양쪽 끝에 막아주시면 됩니다. 2.75인치 풍선 꼭지를 당겨 맨 마지막 단의 풍선 사이사이로 풀어지지 않게 여기저기 지나다니며 꼬아 고정해주세요. 전체적인 모양을 반달모양으로 약간 휘어서 잡아주시면 완성!



#### 5단계(꾸미기)

뭔가 허전하죠? 좀 더 꾸며볼까요?

레드와 화이트 풍선을 빼에로 코만 하게(4cm)불어 풍선 쪽으로 최대한 잡아당겨 매듭을 짓고(매듭을 최대한 잡아당겨 풍선이 최대한 동그라지게 해주세요) 다시 두 풍선의 꼭지를 묶어주세요. 묶은 풍선을 갈란드 사이사이에 보기 좋게 끼워주세요.

양 끝을 붉은 리본으로 장식해주면 한층 더 멋진 갈란드가 됩니다. 드디어 완성!!!



사진과 설명을 잘 읽으면서 따라 해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멋진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성당에, 집에, 손수 만든 트리와 장식으로 성탄 분위기 물씬 내보길~~ ^^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미리 성탄 인사할게~ 메리 크리스마스!!! ☆

사진과 설명 자료를 제공해주신 연산성당 김은경(오틸리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Cum 땡글정원